

## 세월호 고교생 “살려달라” 전화에 위도·경도 물은 ‘답답海警’

〈목포해양경찰〉

단원고 학생 8시 52분  
전남소방본부·해경에 신고  
배 위치 만 계속 확인하다  
결정적 골든 타임 4분 놓쳐

**세월호 인명 피해 상황**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189명 사망 113명  
 ※ 22일 오후 8시 현재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최초 신고한 단원고 학생의 긴박한 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도 인이하게 대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 등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이런 해양경찰을 믿고 누가 신고할까”라는 반응이 터져나올 정도로, 제대로 대응했다면 세월호 출동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사고 초기부터 수습 과정까지 미흡한 대응력을 보인 해양경찰의 무능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통곡의 진도 팽목항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7일째인 22일 오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사망자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실이 전해지면서 서 비난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2일 전남도소방본부 등이 공개한 사고 당시 녹취록을 보면 한 학생이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 32초에 전남도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여기 배인데 배가 침몰하는 것 같다”고 긴급한 상황을 전했다.

이 학생은 “목적지인 제주도로 가고 있고 선생님을 바꿔 주겠다”고 말했다. 침몰 선박 이름도 ‘세월호’라고 전했다. 119는 곧바로 해경 상황실로 연결하며 “배가 침몰한다는 신고가 왔다”고 전했다. 이 때가 8시 54분 7초로, 119에서는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해보니 서거차도로 나온다는

신고자 전화번호도 전달했다. 이후부터 신고자, 119, 해경 상황실 간 3자 통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목포해경은 오히려 경·위도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되묻는 답답한 장면을 연출했다. 신고자를 선원으로 착각, 배 이름 대신, 배 위치를 묻는 것도 반복했다. 전남도 119 상황실이 끼어들어 “경·위도는 아니구요. (신고하신 분은) 배 탑승하신 분, 배 탑승하신 분”이라고 말했음에도, 듣지 못한 듯 반복해서 물었다. “거기 GPS 경위도 안 나오나요”라고도 물었다.

한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해경은 사고 초기부터 탑승객 확인, 사망자 수습 등에서 여러차례 미숙하게 대응한 데 이어 또 다시 허술한 초기 신고 대응에 따른 비판도 커지고 있다. 목포해경은 “전남 119 소방본부에서 신고자 전화 연결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당연히 조타실에 위치한 승무원일 것으로 간주하고 경·위도를 물었다”고 해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세월호 최초 신고 접수 내용**  
 15일 당시 세월호가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최초로 사고 신고 하기 3분전

**① 8시 52분 32초**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 단원고 학생 최초 신고 전화 접수

**최초 신고자 단원고 학생(신원 미상)**

전남소방본부 119상황실: 여보세요.  
 네, 119상황실입니다.: 종락  
 배가 침몰해요?: 여기 배인데 여기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배 이름이 뭐예요? 제가 해경으로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종락  
 침시만요, 세월호요, 세월호.

**② 8시 54분 7초**  
 전남 119, 목포해경에 접수받은 사고 신고 내용 전달 (전남 119-목포해경-신고자 3자 통화)

**목포해경**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119상황실인데요.: 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신고가 왔는데요.: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요? 배 위치요? 위치?  
 지금 핸드폰 기지국 위치는 진도 조도요.: 종락

**③ 3자 통화 중**  
 목포해경, 최초 신고자에게 배 위치 등 GPS 경위·출항지·선박 이름 및 분류 등 요구

119: 신고자분 지금 해양경찰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 통화 좀 하세요.: 여보세요, 목포해양경찰입니다. 위치 말해주세요.  
 학생: 네?: 위치! 경위도 말해주세요.  
 학생: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곳 -: 위치를 모르신다고요? 거기 GPS 경위도 안 나오나오, 경도하고 위도!  
 학생: 여기 섬이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 위치를 모르신다고요? 어디서 출항 하셨어요?  
 학생: 배 이름이 뭐가요? 배 이름?: 네, 저희가 하나 연락했습니다.

**④ 8시 55분 38초**  
 목포해경, 최초로 신고자로부터 선박 이름 확인

학생: 세월호요, 세월호.: 세월?  
 학생: 네.: 종락  
 119: 해경입니까? 여기 119상황실인데요. 여기 전화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다른 전화로.: 종락  
 119: 네,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신고가 계속 들어와요?  
 학생: 네, 저희가 하나 연락했습니다.

**⑤ 8시 56분 50초 통화종료**  
 목포해경, 선박 침몰 신고 확인  
 전남도 소방본부 119상황실 통화종료 (전체 통화시간 4분 18초)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59 호남예술제

1956-2014 제59회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4.4.23(수) ~ 6.28(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미술·작문 부문  
 2014.5.13(화) ~ 5.16(금)

**참가자격** |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경연기간** | 4월 23일(수) ~ 5월 29일(목)  
**참가부문** | 음악·국악·무용·미술·작문  
**접수방법** | •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우편신청: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함  
 •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경연일정** |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세부일정은 접수마감후 확정 4월 21일(월) 발표)  
**시상** |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 국회의원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개인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입선(미술·작문)  
 •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문의** |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

주최 62 광주일보사·(사)아시아문화 협찬 SAMSUNG 삼성생명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영광군